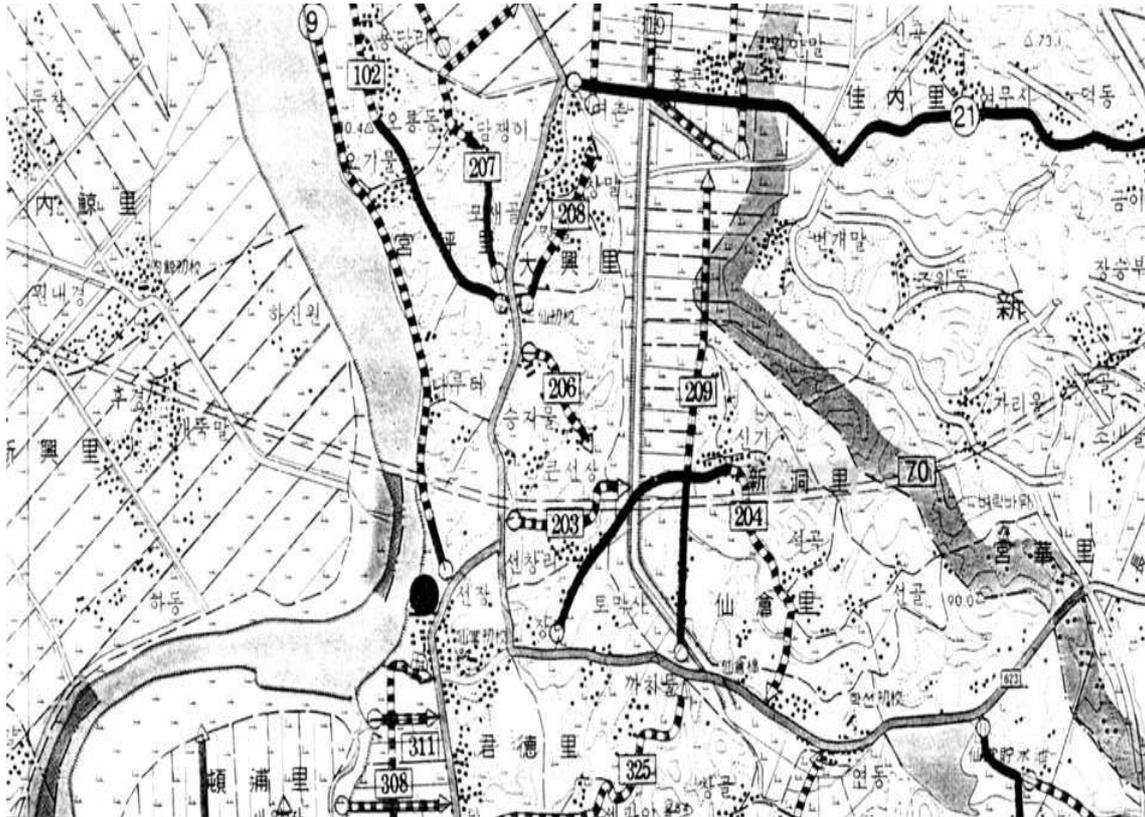


신동리

신동리(新洞里)는 선장면의 마을로 박씨가 많이 사는 곳이다. 이 마을은 두 마을로 나뉘는데 1구를 섯골, 2구를 신기라 한다. 섯골엔 49세대가 살고, 신기엔 그보다 좀 적은 39세대가 산다. 또한 신동리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1구는 47가구가 농업을 하며 2구에는 39가구중 2가구만 축산업을 한다. 신동리는 본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으로 인조 때 밀양 박씨가 섯을 치고 마을을 이룩하였으므로 섯골, 또는 신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기리, 선장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신동리의 위치도>



☒ 섯골, 신기마을

밀양 박씨가 9대째 살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인 아산 요양원과 온양 정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선장면 신동2리가 되는 신기마을은 윗말, 아랫말, 유두벌을 합하여 한 동네가 되었으며 부영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부락명은 신기라 부른다. 북서쪽은 들과 접해 있고 남동쪽은 산과 접해 있다. 교통은 다소 불편하나 언제나 조용하고 평안한 마을이다. 주생산품은 쌀, 고추, 고구마, 배추, 포도, 배, 동양란 등이다.

<조사당시 신동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쇳골마을은 위도 36-47-20, 경도 126-53-50 지역으로 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3.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623번도로를 따라가면 1.5km 정도가 더 멀다. 신기마을은 위도 36-47-30, 경도 126-53-20인 지역으로 쇳골에서 정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2) 현 황

쇳골은 한 마을의 작은 자연부락으로 인구가 129명이다. 그중 남자가 68명, 여자 61명이다. 전체 49가구중 47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신기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74명 여자 49명으로 총 123명이고 전체 39가구중 37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쇳골마을	129명	68명	61명
신기마을	123명	74명	49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기타
쇳골마을	100%	96%		4%
신기마을	100%	95%	5%	

주민 9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논과 밭도 많은 편이다. 논은 총 72.5ha, 밭은 28.5ha이다. 농기계는 쇳골마을이 경운기와 분무기가 각각 31대, 25대로 가장 많으며, 트랙터 1대, 이앙기 17대, 관리기 9대, 콤바인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신기마을은 경운기 18대, 분무

기 20대, 트랙터 4대, 이앙기 12대, 관리기 4대, 콤바인 3대를 보유하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쇳골마을	59ha	40ha	19ha
신기마을	42ha	32.5ha	9.5ha

- 영농기계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분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쇳골마을	31대	25대	1대	17대	9대	3대
신기마을	18대	20대	4대	12대	4대	3대

신동리의 문화시설은 리별로 마을회관이 있으며, 그 안에 앰프와 농악기구가 각각 하나씩 비치되어 있다.

- 문화 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농악기구
쇳골마을	1개소	1개	1조
신기마을	1개소	1개	1조

연령분포를 보면 쇳골마을은 다른마을에 비해 70대가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신기마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성씨분포도에서는 쇳골마을에는 박씨가 69%로 가장 많 이 살고있으며, 신기마을은 46%가 김씨가 가장많이 살고 있다.

- 연령별 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쇳골마을	2명	17명	5명	6명	19명	18명	31명	5명	5명
신기마을	8명	16명	5명	10명	20명	21명	15명	3명	3명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임씨	손씨	전씨	기타
쇳골마을	10%	2%	69%	4%		4%	11%
신기마을	46%	7%	5%	5%	8%		29%

- 학생 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쇳골마을	8명	2명	5명	4명
신기마을	12명	7명	5명	3명

- 최고령자

쇳골마을은 97세의 이선규 할아버지이시며, 신기마을은 83세의 김학대 할아버지, 임간난 할

머니로 조사되었다.

- 호당평균소득

설골마을은 년 1,500만원, 신기마을은 년 1,000만원

3) 자연 경관

6.25 피난시 신동리 앞 선창리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들었지만, 이곳 설골마을에는 몇몇만이 왔을 정도로, 마을이 야산에 둘러싸여 있고 마을 입구도 야산 언덕 길에 있어 마치 고목나무 속의 새둥지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신기마을에는 산이 거의 없다 다만 마을의 집들을 가로질러 작은 산이 하나 있을뿐 마을 앞쪽 즉 북동쪽으로 눈들만 펼쳐져 있다. 집들은 산을 중심으로 한 군데 모여 있으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은 산들이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설골은 본래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으로 인조때 밀양 박씨가 설을 치고 마을을 이룩하였으므로 설골, 또는 신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기리, 신장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리라 하여 아산군 신장면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원래 설골이라는 한 마을에서 다른 성씨들이 설골 한쪽으로 들어옴에 따라 새로운 마을이 생기면서 두 마을로 나뉘어 졌다 이새로 생긴 마을을 2구로 정하고 신기라 불렀다.

5) 입 향

약 400년 전에 밀양박씨인 박진만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설(울타리)을 치고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설골엔 아직도 박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신기마을은 영조때 김해김씨가 새로 터를 잡고 살았다.그래서 마을대부분이 김해김씨이다.

6) 지 명

- 둔덕산 : 신동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90m정도의 높이이다. 이 산의 토양은 영양분이 많으며, 호박돌이라는 매우 단단한 돌이 많다.
- 진대 성향당 : 부영산 밑에 있는 골짜기.
- 철룩산 : 지금의 신기 자리에 있던 절터에 철미루키 있었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 부영산으로 바뀌었다.
- 부영산 : 설골과 신기 사이에 있는 산으로 일제 때 부영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두리봉 : 설골 남서쪽의 양로원 뒷산.
- 주봉산 : 부영산의 능선 봉우리.
- 수리봉 : 설골 남서쪽에 있는 산
- 지치봉 : 윗 넘골의 동쪽산.
- 안개봉 : 작은 설골 남쪽산.
- 윗넘골 : 철룩산과 둔덕산 사이의 골짜기.
- 보습필 : 둔덕산 아래에 있는 마을.
- 살 터 : 사타구니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
- 작은 설골 : 신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바위자리 논 : 작은 설골과 둔덕산 골짜기가 교차되는 곳의 논.
- 도라미 : 내신동에서 외신동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
- 성계자리 논 : 도라미 앞의 논으로 거머리가 많다.
- 황해논 : 경계는 밑에 있으며 황오리가 많다.
- 경계논 : 길뚝자리 밑의 논.
- 등잔다랭이논 : 철룩산 골짜기에 있는 논으로 여름에 물이 자는 모양이 꼭 등잔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광동샘 : 국논 고랑 위에 있는 우물로 수질이 좋아 여전에는 식수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

용하지 않는다.

- 찬 샘 : 수구봉 앞에 있으며 물이 무척 차가웠다.
- 집동샘 : 칠특산 앞뜰에 있는 샘으로 물이 집동과 같이 나온다 한다.
- 쇳골 : 옛날에 쇳을 치고 살면서 이룬 마을이라 서 지어진 이름
- 신 기 : 쇳골 서북쪽에 새로 된 마을 영조때 김해 김씨가 터를 잡아 살았음. 원래는 신창면 가내리 쪽에 위치한 부락을 지금의 비리로 부락전체가 옮겨옴으로 지어진 이름.
- 유두뿔 : 신기 옆 별판에 있는 마을. 예전에 야산이 있던 곳이 마을로 변했으며 이곳에 유두대라는 풀이 많이 나서 유래 되었다.
- 절 터 : 1구와 2구에 걸쳐 있는 칠특산에 절터가 있는데 절터는 2구에 속한다고 한다 지금은 절터는 없어지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 신동리고분 : 고려시대의 석관묘로 확인됨.
- 송가고개 : 앞말에서 쇳골로 가는 길목 예전에 이고개에 정승을 지낸 송씨가 살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 진 논 : 논이 한쪽만 긴 형태라 해서 붙여진 이름.
- 장구배미 논 : 논 모양이 마치 장구통 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 세구 배미논 : 형태가 세포 모양이라 붙여진 이름.

7) 전설

·진대 성황당

옛날 성종 1475년 때, 걷어들인 조세를 서울로 운송하기 위해 배에 실어 인천으로 가져갔다. 조세품을 하역하던 도중, 배 밑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몸을 들고 있어, 인부들이 몹시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구렁이는 죽어 있었고, 구렁이가 있던 곳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자신의 몸으로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종은 구렁이의 기특함을 위로하기 위해 공단을 하사 하신후 구렁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어 묻어 주라 하였다. 그래서 구렁이를 관에 넣어 지금의 진대 성황당이 있는 곳에 이르자 관이 움직이지 않아, 구렁이를 그곳에 묻었다 한다. 그후 신창 군수가 1년에 한번씩 이곳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여기서 진대는 구렁이를 말한다. 진대 성황당에 관한 또다른 전설이 하나있다. 음력 2월 28일 새벽에는 진대 성황당에서 지금의 읍내리에 있는 학성산까지 길다랗게 안개가 피었는데, 이 안개는 보통 안개가 아니라 일종의 길로 성황당의 구렁이와 학성산의 단각시즉, 부처가 결혼식을 올리는 길이었다고 한다. 이날 후에 단각시의 목을 보면 뿔뿔이 묻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부영산

선장면 신동리에 자리 잡고 있는 부영산은 지금은 낮은 산으로 됐지만 옛날엔 무척 높고 험준했다. 인척도 무척 드문 곳인데 어떤 젊은이가 사랑했던 애인이 부모의 억압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실의에 빠져 속세를 떠나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젊은이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언제나 단소를 불었다. 젊은이의 단소소리는 아랫마을에 들려 동네 사람들은 귀신소리라 하며 이 산에 가기를 무척 꺼렸다. 그러던 어느날 단소를 불고 있는데 산 기슭에서 머리를 풀고 소복한 여인이 나무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아련히 보였다. 젊은이는 단소를 던지고 달려가 여인을 끌어 내렸다. 순간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자기의 전 애인이었다. 여인은 이미 정신을 잃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심장은 조금씩 뛰고 있었다. 젊은이는 여인을 옹달샘으로 데리고 가 찬물찜질도 하고 약썩도 빵아 그 즙을 입에 흘려 넣어주며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여인은 야속하게 깨어날 줄을 몰랐다. 궁리 끝에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넣어 주었으나 마찬가지였다. 어둠은 밀려오는데 청년은 여인의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몇 년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애절하게 죽어가니 애간장이 녹아 내리듯 여인의 얼굴로 한방울 한방울 흘러 내리는 눈물은 청년의 슬픔을 말해 주는 듯 했다. 깊은 밤 여인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젊은이는 슬퍼하며 여인을 정성스럽게 묻어 주었다. 그 무덤에서 한 마리의 부엉이가 솟아 올랐다. 이때부터 이산엔 부엉이가 많이 날아오고 밤이 되면 부엉이가 무척이나 울었다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이 마을은 박씨 집성촌으로 경로 효친 사상이 극진하여 청년회에서 매년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있음. 그외에도 마을계를 조직하여 침목을 다지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토정 이지함.

토정비결을 쓰신 이지함 선생은 이곳 신동리를 보고 `칠륙 산하에 만인가 활거지`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칠륙산 아래에 만인이 살수 있는곳이라는 뜻이다.

10) 종교 단체

신문리에는 종교단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공장현황

(주)한국하우톤-신동 산40-2, 허가일 95.10.17, 면적 38,182

종업원수 31, 윤회율

12) 마을의 특성

주민전체의 성격이 온순하고 단결 협동심이 강하며충효와 더불어 사는 마을 분위기 조성으로 1985년도와 1986년도 2회 연속으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검찰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다. 게다가 마을도 단결이 잘되어 마을회관을 재건립하여 마을의 위상을 높이고 마을공동급수 시설을 100% 완료하였다.